

프랑스 출신의 화가, 폴 고갱의 회화 작품 중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39.1cm x 374.6c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캔버스 대신, 거칠고 두꺼운 삼베(burlap) 위에 그려졌으며, 이는 벽화와 같은 질감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생애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서사적으로 보여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오른쪽): 잠든 아기와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며, 인간의 탄생과 생명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중앙): 화면 중앙에서 사과를 따는 청년은(아담처럼), 인간의 일상적인 삶과 원죄 혹은 욕망을 상징하며, 화면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왼쪽): 죽음을 앞두고 체념한 듯, 얼굴을 감싸 쥐고 있는 노파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소장된 보스턴 미술관)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운명적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어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감히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질문만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환기(換氣)시키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 3가지 위대한 선언(宣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I. 세 가지 질문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서, 주(主)는 누구인가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主)로 묘사되고, He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뒤에서 그는 목적어로서 Him이 되기도 합니다. 3가지 질문 중 첫 번째 것은,

1.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통(神通)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선지자는 두로왕에 대하여 에스겔28:6절에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다"고 책망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치실 것을 경고(警告)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16절에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들이라 해도, 항상 주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하면서 바라는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돈의 세계와 정치, 군사, 경제, 사회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 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11:33)

2. <누가 2의 모사(謀士)가 되었느냐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counselor)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더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성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40:13-15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예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을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No body, Any body can not!

3.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잘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마도 이 말씀은 육기 41: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를 배경으로 한 인용(仁用)한 말씀 같습니다. 육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 40:11절에서도 인용)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갚고, 되돌려 드립니다. 물질이든, 예배든 헌신이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페이백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한 것이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드리고, 하나님이 그 후에 나에게 페이백 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씀이지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더더구나 그의 상담자(相談者)가 되는 일은 가당치도 않구요. 그럴 능력도 없구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되돌려드리는 일에도, 인색하고, 무성의한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인데, 어찌 하나님에게 먼저 선의를 베풀고, 답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겠어요! 아니예요. 절대...

위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피조물인지, 삼라만상을 이해 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無意味)한 일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 정답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정답(正答)을 말합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절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해답입니다. 역사에 대한 답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철학(歷史哲學)이고 신학적 진술입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가 답(答)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언은 우리의 인생과 세계관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정체성선언(正體性宣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정체성(正體性)의 선언(宣言)을 살펴봅시다.

II 세 가지 정체성의 선언

1.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From Him)

로마서 11:36절의 첫 문단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입니다.

한글성경은 만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성경은 대부분, **모든 것(all things)**라고 번역하였습니다.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이 문장은 주어와 보어(또는 부사구)의 위치가 바뀐 '부사구 강조를 위한 도치' 형태입니다.

원래의 어순은 All things are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ll things (주어) + are (동사) + from... through... to (전치사구/보어 역할)

* 왜 도치를 사용했나요? 보통 강조(EmpHASis), 강렬하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이 어순배치는 신약성서 헬라어와 어순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이 문장을 강렬하게 기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믿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울이,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주’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선 Him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앞의 절들에서 말한 주(主)가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Him 이라고 말한 그 Him 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him은 전치사 from의 뒤에 오는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전치사(from, through, to 등)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가 왜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s) Him을 써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from God이라고 하지 않고 from Him 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저의 이해에서는 인격적(人格的)인 친근함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He라고 불렀던 것처럼, 인격이신 하나님이 Him이라고 불러 우리 주변에 가득한 Him의 하나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영어성경은 Him 을 일반 him과 구별하기 위해 대문자 Him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대 헬라어 사본(성경 원문 시절)에는, 영어처럼 'Him'을 대문자화하는 표기법이 없었습니다. 전부 대문자이거나 소문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쓰였던 시기의 고대 헬라어 사본은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만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대문자 'Him'을 쓰는 것은, 현대 영어권의 신학적 예우와 관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헬라어 로마서 11:36의 "from him"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αὐτοῦ'(아우투)는 일반적인 3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전치사 뒤에서 목적격 역할) 형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로부터 왔다는 이 겸손한 언급은 그 의미에 있어선 명확한 선언입니다.

1. 모든 것이 from Him,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모든 것에는, 만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사 44:24)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0절에서도, 우리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萬物)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평체하지 못할지니라."

2. 그 모든 것中最 가장 핵심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존재의 고향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 나의 과거와 지금이라는 현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는지요?

2.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Through Him)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빛과 공기와 물과 음식에 의해서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케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매개체(媒介體)를 통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職業)과 직장(職場)과 사업(事業)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도, 그 배후(背後)에 하나님에 계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기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起動)하며, 존재(存在)하느니라 (행17:27-28)"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排置)해주시고 거주의 경계(境界)를 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감사하게 되고 겸손(謙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욕심(欲心)부리지 않고 염려(念慮)하지도 않게 됩니다.

욕심으로 죄를 짓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恩賜)와 온전한 선물(膳物)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4-17)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결코 티나 흔적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하루라는 삶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즐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번째 선언입니다.

3.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To Him)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리로 회귀(回歸), 복귀(復歸)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운명(運命)입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그분에게 결산(決算)도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靈光)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으니,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세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실을 인정(認定)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되, 모른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돈 하고 살지만, 정작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소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from Him, through Him도 중요한데 to Him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5-17)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세상도 주님주신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主禱文)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우리가 기도해야하고 추구해야할 삶의 귀한 가치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肉的) 영적(靈的)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 거룩함과 사랑을 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마태6:13)라고 고백하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잠시 맡아야 할런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표준)”

로마서 8장 끝의 찬양과 11장 끝의 찬양은, 로마서 안에 쌍벽을 이루는 찬양이라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앞의 것(8장끝)은 개인적인 것, 뒤의 것(11장끝)은 민족적이고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앞의 것은 구원의 확실함을, 그리고 뒤의 것은 하나님 지혜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특히 11장의 찬양은, 인류구원의 결말을 짓는 찬양으로 잘 어울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NIV) 이것은 피날레입니다.

이것은 감동(感動)과 감격(感激)입니다.

너무 장대하여, 사진에 담을 수 없는 장관에, 압도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찌 그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십니까?

“Soli Deo Gloria”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라틴어 구절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물의 중심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옆에서와 안에서, 그의 역사를 보며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맺음 : 모든 것은, 주께 영광이 돌려져야합니다.

나이가 든 시니어들이 되면, 가지는 감정(感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도 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소외감(疏外感)과 허무(虛無)한 감정들이 들어와, 점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翻譯)합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나리와 천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from You, through You, from You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모든 것을 주께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